

# 6.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in Blockchain

# Contents

1. 암호학 기초
2. 해시 함수
3. 디지털 서명
4. 공개 키 암호화
5. Merkle Tree
6. 영지식 증명 (Zero-Knowledge Proof)
7. 블록체인 보안과 암호학

# 1. 암호학 기초

## 암호학이란 ?

- 정의
  -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안을 유지하고,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기술
- 목적
  - 기밀성 (Confidentiality)
  - 무결성 (Integrity)
  - 인증 (Authentication)
  - 부인 방지 (Non-repudiation)
- 블록체인에서 암호학의 역할
  - 데이터 무결성 보장
  - 트랜잭션 서명과 검증
  - 네트워크 내 익명성 제공

## 2. 해시 함수

### 해시함수란 ?

- 해시 함수의 정의
  - 입력 데이터를 고정된 크기의 해시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
    - 비트코인의 **SHA-256** : 블록 헤더와 트랜잭션 데이터 무결성 보장
    - 이더리움의 **Keccak-256** : 스마트 컨트랙트와 트랜잭션 해싱
- 블록체인에서의 활용
  - 트랜잭션 무결성 : 트랜잭션 데이터를 해싱하여 조작 방지
  - 블록 연결 : 블록 헤더의 해시 값으로 체인을 연결
  - Merkle Root 생성 : Merkle Tree 구조에서 트랜잭션 요약

## 2. 해시 함수

### - SHA-256 해시 계산

- 입력 : "Hello, Blockchain!"
- 출력 : a591a6d40bf420404a011733cfb7b190d62c65bf0bcda32b58ba47b9d1731862

```
import hashlib

# 입력 데이터
data = "Hello, Blockchain!"

# SHA-256 해시 계산
hash_result = hashlib.sha256(data.encode()).hexdigest()

# 결과 출력
print(f"SHA-256 Hash: {hash_result}")
# SHA-256 Hash: a591a6d40bf420404a011733cfb7b190d62c65bf0bcda32b58ba47b9d1731862
```

### - 해시함수 속성

속성	설명
충돌 회피성	서로 다른 입력이 동일한 해시 값을 생성하지 않아야 함
역상 저항성	해시 값으로 원래 입력을 역산할 수 없어야 함
효율성	해시 계산이 빠르게 수행되어야 함

## 3. 디지털 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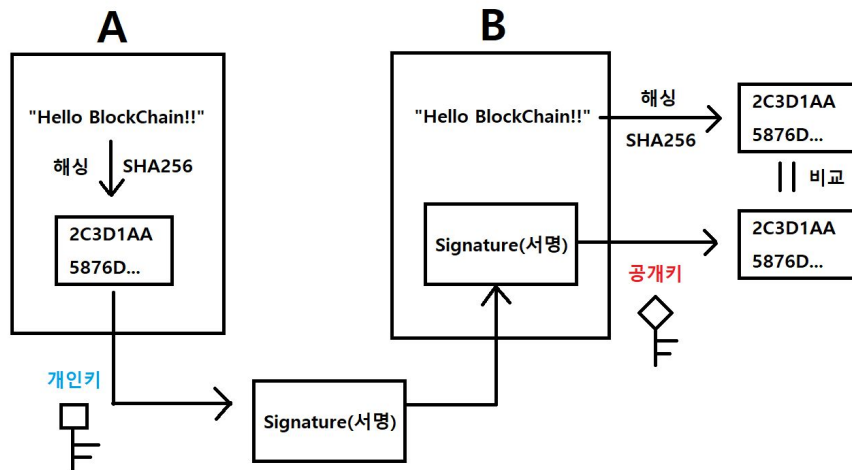
### 디지털 서명이란?

- 디지털 서명 정의
  -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발신자의 신원을 인증하고,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
- 블록체인에서의 역할
  - 트랜잭션 서명 : 발신자의 트랜잭션 서명을 통해 권한 확인
  - 데이터 검증 : 수신자가 서명을 검증하여 데이터 무결성 확인

### 3. 디지털 서명

#### 디지털 서명 작동 원리

1. 발신자가 개인 키로 메시지를 서명
2. 수신자가 공개 키로 서명을 검증
3.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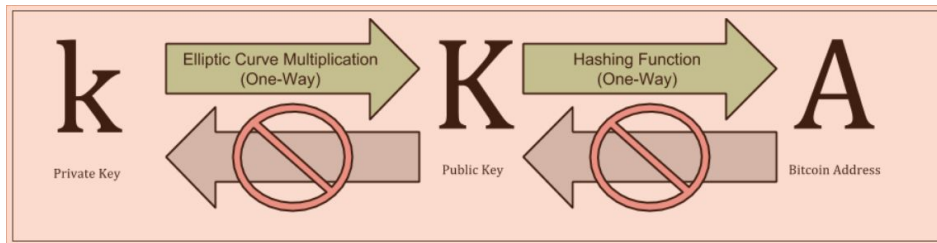
## 4. 공개 키 암호화

### - 공개키 암호화 정의

-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
- 발신자는 개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, 수신자는 공개 키로 복호화

### - 블록체인에서의 활용

- 트랜잭션 서명
- 키 쌍 관리 (공개 키 - 개인 키)





## 5. Merkle Tree

### Merkle Tree란?

- Merkle Tree는 트리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, 각 노드가 해시 값을 포함
- 트리의 가장 하위에 있는 데이터 블록(Leaf node의 해시 값을 계산한 뒤, 이를 반복적으로 조합해 최종적으로 루트 해시(Merkle Root) 생성

### Merkle Tree의 이점

- 효율성 : Merkle Proof를 통해 데이터 검증이 빠르고 경량화
- 확장성 : 대규모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검증 및 저장 가능
- 보안성 :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변조되었는지 빠르게 확인

## 5. Merkle Tree

### Merkle Tree의 주요 역할

- 데이터 무결성 검증
  - Merkle Root를 통해 전체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 가능
  - Merkle Proof를 사용하면 특정 데이터가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효율적으로 증명 가능
- 데이터 경량화
  - Merkle Proof를 통해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특정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 가능
  - 경량 노드(Light Node) 또는 SPV(Simple Payment Verification)에서 활용 됨

### 사용 예

- **Bitcoin** : Merkle Tree 사용
- **Ethereum** : Merkle Patricia Tree 사용

## 5. Merkle Tree

### 비트코인에서의 Merkle Tree 사용

- 비트코인에서는 각 블록의 트랜잭션 목록을 Merkle Tree로 구성하여 Merkle Root 생성
- Merkle Root는 블록 헤더에 저장되어 블록의 트랜잭션 무결성을 보장
- SPV 클라이언트(경량 클라이언트)는 Merkle Proof를 활용해 전체 블록체인을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특정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어있음을 검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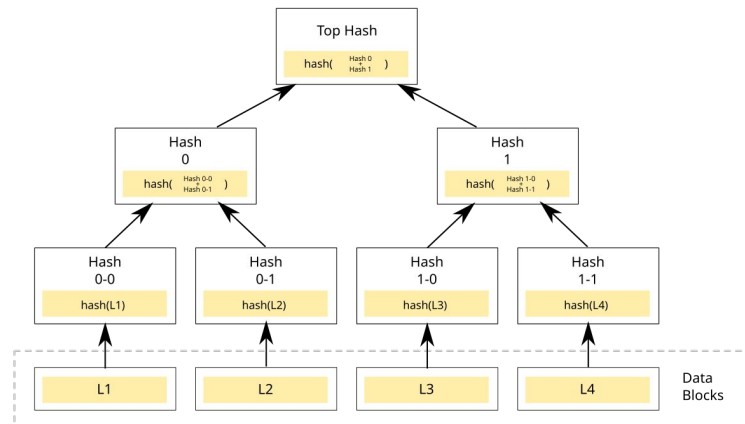
### Merkle Tree 특징

- 데이터가 변경되면 루트 해시(Root Hash)가 변경되므로,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
- 루트 해시(Root Hash)를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효율적으로 검증 가능

## 5. Merkle Tree

### Merkle Tree 동작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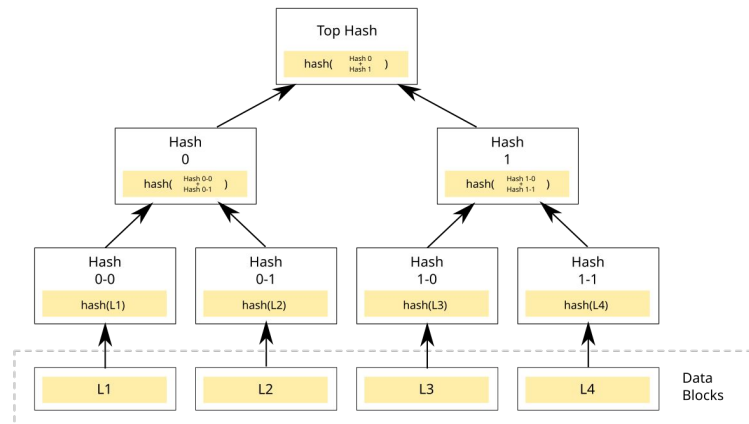
- 데이터 **삽입**
  - 모든 데이터는 해싱(Hashing)을 통해 고정된 크기의 해시 값으로 변환 됨
- **리프 노드 (Leaf Node)**에 원본 데이터를 해싱한 결과를 저장
- 리프 노드(Leaf Node)에서 시작해 상위 노드로 해시 값을 결합하여 트리를 구성
  - 두개의 자식 노드의 해시(Hash)를 결합하여 부모 노드의 해시를 생성
  -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**Merkle Root**가 생성



## 5. Merkle Tree

### Merkle Tree 동작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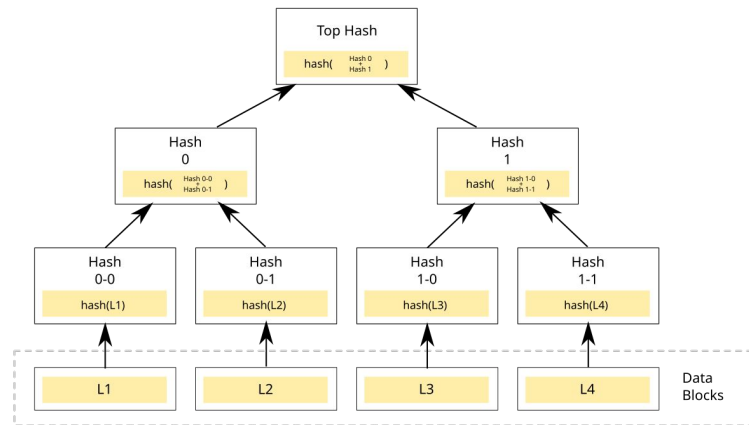
- 데이터 검색
  - Merkle Tree는 검색보다는 데이터 검증에 중점을 둔 구조
  - 검색은 리프 노드에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
  - 키(Key)가 없는 단순한 트리 구조이므로 특정 데이터의 위치는 미리 알고있어야 검색 가능
- 검색 예시
  - 특정 데이터 L2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
    - 리프 노드에서 Hash(L2)를 찾음
    - 해당 노드가 존재하면, 데이터가 트리에 포함 됨



## 5. Merkle Tree

### Merkle Tree 동작방법

- 데이터 검증
  - 특정 데이터가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
- 검증 예시
  - 검증 대상이 L1라고 가정하면
    - Hash(L1)를 리프노드에서 가져옴
    - 형제 노드 Hash(L2)를 가져와 Hash(L1+L2)를 계산
    - 부모 노드의 형제 해시 Hash(L3+L4)를 가져와 Hash(L1+L2+L3+L4)를 계산
    - 최종 계산 결과가 Merkle Root와 일치하면 데이터가 트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검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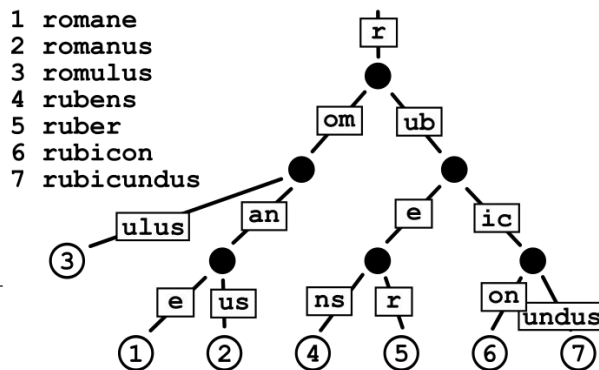
## 5. Merkle Tree

### 이더리움에서의 Merkle Patricia Tree 사용

- 계정 상태 저장 : 각 계정 상태(잔액, 코드, 저장소 등)를 저장하고 검증
- 트랜잭션 기록 : 블록의 트랜잭션 목록을 Merkle Patricia Tree에 저장
- 로그 저장 : 이벤트 로그 데이터도 Merkle Patricia Tree로 관리

### cf. Patricia Trie (a.k.a Radix Tree)

- Patricia Trie는 Trie 구조를 최적화한 버전
- 경로(Path)가 겹치는 노드들을 합쳐 공간 효율성을 높인 구조  
ex. 키 **abc** 와 **abd** 가 있으면, 공통경로 **ab**를 하나의 노드로 결합



## 5. Merkle Tree

### Merkle Patricia Trie의 특징

- 데이터 무결성
  - 해시 기반 검증
    - 모든 노드는 하위 노드들의 해시값으로 계산된 해시를 포함
    - 특정 노드가 변경되면 상위 노드와 루트해시(Root Hash)까지 모두 변경됨 → 데이터 변조시 즉시 감지
- 효율적 데이터 검색
  - Patricia Trie의 경로 최적화를 통해 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 가능
- 증명 가능성 (Proof of Inclusion)
  - MPT는 특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Proof of Inclusion을 제공  
ex. 데이터가 포함된 경로를 따라가며 루트해시(Root Hash)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



## 5. Merkle Tree

### Merkle Patricia Trie의 동작 원리

- 데이터 **삽입**
  -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면, 키를 기반으로 적절한 경로를 따라가며 **Leaf Node**에 데이터를 저장
  - 노드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하면, 영향을 받은 모든 상위 노드와 루트해시(**Root Hash**)가 업데이트
- 데이터 **검색**
  - 키를 기반으로 트리 경로를 따라가며 데이터를 검색
  - Patricia Trie의 최적화를 통해 키의 공통 경로를 빠르게 이동
- 데이터 **검증**
  - 특정 데이터가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증하려면
    - 루트해시(**Root Hash**)부터 시작해 경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해시 값을 계산
    - 최종적으로 **Leaf Node**에서 데이터를 비교

## 6. 영지식 증명 (Zero-Knowledge Proof)

### - 영지식 증명이란 ?

- 상대방에게 아무런 정보(민감한 정보)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신이 특정 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

### - 블록체인에서의 활용

- 프라이버시 보장
  - 거래 금액, 거래 상대방 정보 등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거래 유효성 검증
    - o ex. Zcash의 프라이버시 트랜잭션
- 효율성 제공
  - 대규모 데이터 검증 과정에서도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아 네트워크 부하 감소
    - o ex. zk-Rollup 기술

## 6. 영지식 증명 (Zero-Knowledge Proof)

### 영지식 구현 방식 예시

#### - 상황

- 친구1(검증자)은 두 공이 서로 다른 색(빨간색, 녹색)임을 확인하려 함
- 친구2(증명자)는 공의 색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,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자신이 알고있음을 증명하려 함

#### - 방법

1. 친구1(검증자)는 두 공을 뒤로 숨기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, 바꾸지 않을 수도 있음
2. 공을 친구2(증명자)에게 보여주며 "순서가 바뀌었는지" 물어봄
3.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친구2(증명자)는 공의 색 차이를 이용해 항상 정확히 대답
4. 친구1(검증자)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친구가 공의 색을 실제로 알고 있음을 확신

## 7. 블록체인 보안과 암호학

- **블록체인의 보안**
  - **51% 공격 방지** : PoW, PoS 같은 합의 알고리즘으로 공격 방지
  - **Sybil 공격 방지** : 노드 신뢰도 평가
- **암호학의 역할**
  - 데이터 암호화
  - 트랜잭션 무결성 보장

# End